

## 협회의 운영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최연순

농림부 축산경영과 축산사무관

소사육농가를 대표하는 협회로서 스스로 거듭나야 하고 협회의 운영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우선 조직 자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더욱 높여 발전지향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농민을 지도하며, 국제정보교환을 통해 농민에게 새로운 기술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뿐 아니라 회원을 확충하여 재정자립을 높여 나가야 한다.

낙농육우협회는 기업목장협회와 낙농협회를 모체로하여 1981년 창립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낙농육우산업의 발전과 한·육우 및 낙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초창기에 협회는 단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을 측면에서 지원한다거나 창조하는 정도로 그 영향력이 아주 미미하였으나 오늘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축산업의 주변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소사육농가의 권익을 대변하는 순수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괄목한 만큼 성장하여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간 협회의 활동을 간추려 보면, 축산농가의 숙원이던 배합사료부가세 전면 적용을 비롯하여 무허가축사 양성화, 우유·쇠고기의 위생논쟁 대응활동, 선진 축산기술 보급, 원유가격 조정 및 위생등급제의 조기 시행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다했으며, 지금도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 낙농제도개선을 위한 낙농진흥법개정 추진과 한우산업발전대책 마련에 앞장서서 축산농가의 입지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소사육농가를 대표하는 협회로서 스스로 거듭나야 하고 협회의 운영에도 혁신이 필요하

다. 그러자면 우선 조직 자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더욱 높여 발전지향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농민을 지도하며, 국제정보교환을 통해 농민에게 새로운 기술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뿐 아니라 회원을 확충하여 재정자립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과 같이 업종 전문화를 위해 협회가 참여하는 관련단체에서 자조금제의 시행과 더불어 자율적인 축산물수급 및 가격조정기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불과 4년후인 2001년이면 이미 완전개방된 낙농품에 이어 생우(生牛)와 쇠고기의 시장개방이 필연적이다. 협회는 물론 우리 모두가 이와같은 변화가 위기가 아니라 바로 기회라는 인식을 갖고 국내 낙농육우산업을 지켜 내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시장개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한 협회가 중심이 되어 제도개선에 힘을 결집하고, 소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하루 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 아무튼 협회는 54만 소사육농가의 기대가 자못 크므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스스로 변신하는 가운데 그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